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Transfer Students

Min Kyung Jeon^{1#}, Ick Jee Kim²⁺, Young Suk Kim³, Mi Young Han⁴

¹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208, Samgye-ro, Gimhae, Korea

²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288, Junam-ro, Yangsan, Korea

³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62, Gamchen-ro, Seo-gu, Busan, Korea

⁴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140, Baegynag-daero 700beon-gil, Sasang-gu,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transfer students in Korea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to be used to improve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42 nursing transfer students enrolled in seven colleges in B city and K province between June 1 to November 30, 201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20.0.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participants include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satisfaction with major and motivation for selecting nursing as maj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help students adapt to college life by reducing stress and enhanc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satisfaction with major.

Key words: adjustment to college,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transfer studen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사 수요-공급 불균형 발생으로 인해 의료 현장은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가 OECD 평균 6.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3.5명으로 OECD 평균의 53.8%수준(OECD Stat, 2017)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신규 간호인력 배출을 확대시키기로 결정하였다(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이에 따라 각 대학의 간호학과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인 전문대학 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따라서 간호학과가 포함되는 의학계열의 편입생 수는 현재 3,202명(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7)에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편입생들은 학업적 동기와 함께 열의를 가지고 의욕적인 도전을 통해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 The 1st author: Min Kyung Jeon, Tel. +82-55-330-1043, Fax. +82-55-330-1142, e-mail. angi99@kaya.ac.kr

⁺ Corresponding author: Ick Jee Kim, Tel. +82-55-380-9439, Fax. +82-55-380-9305, e-mail. ijkim@ysu.ac.kr

로운 대학의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Kim, *et. al.*, 2017). 특히, 간호학과 편입생은 타 교육기관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지닌 채 새로운 대학에 들어오게 되므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학년을 넘나들며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타 전공에 비해 많은 학습량 및 임상실습의 부담(Kim, *et. al.*, 2005; Kim, *et. al.*, 2017)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감성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im & Oh, 2016).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Wong & Law, 2002). 감성지능은 편입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수·동료 간의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i & Yoo, 2013; Ko, 2017).

편입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편입준비를 하고 자신의 적성, 재능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Shin, *et. al.*, 2003). 이와 같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나가는 준비의 정도를 진로태도성숙이라 하며,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Kim, 2015).

따라서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가치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끄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Choi, 2017), 학업스트레스(Cha, 2016), 감성지능, 심리적 안녕감(Oh, 2017)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일부 질적연구(Shin, *et. al.*, 2003; Kim, *et. al.*, 2005;

Kim & Hwang, 2012)를 통해 편입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양적 연구로는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Park, *et. al.*, 2016), 스트레스, 소외감,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Cho & Chung, 2015)를 본 연구가 있었으나, 편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으로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진로태도성숙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여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편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지체계의 구축과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편입생의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감성지능, 스트레스 및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P시와 K도에 소재한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동년 11월 31일까지였다.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작성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150명에게 배부하였다. 이 중 자료가 불성실한 8명을 제외하고 142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수는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요인 13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31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필요로 하는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스트레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Yoo, *et al.*(2008)가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학차원의 스트레스 측정 문항 3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 '전혀 없다' 0점에서부터 '매우 많다' 4점까지의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9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alpha는 .95이었다.

2) 감성지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 &

Law(2002)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바탕으로 하여 Hwang(200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등 총 16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전체의 Ch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의 Chronbach's alpha는 .87, .83, .84, .90이었으며, Hwang의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Chronbach's alpha는 .72, .78, .82, .79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의 Ch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Chronbach's alpha는 .82, .82, .80, .80이었다.

3)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는 Lee(1997)가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바탕으로 하여 Jeong(201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결정성(6문항), 목적성(5문항), 확신성(4문항), 독립성(4문항), 준비성(5문항) 등 총 26문항,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hronbach's alpha는 결정성.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및 독립성 .75이었으며, Jeong(2010)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는 .87, .81, .78, .77,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89, .65, .88, .92, .80이었다.

4)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Bake & Siryk(1984)에 의해서 개발된 대학생활 적응 척도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바탕으로 하여 Park(2010)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Revised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RSACQ)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측정문항 중 일부 문항(5문항)을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1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개인-정서적 적응(10문항), 학업적 적응(4문항), 대학환경적 적응(4문항), 사회적 적응(2문항) 등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가 높음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전체 Chronbach's alpha는 .92~.94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Chronbach's alpha는 개인-정서적 적응 .73~.79, 학업적 적응 .82~.87, 대학환경적 적응 .84~.88, 사회적 적응 .83~.89이었다. Park(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alpha는 .84, .80, .73,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Ch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Chronbach's alpha는 .87, .71, .60, .78 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kaya IRB-74호)를 통과한 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필요성과 익명성을 보장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 자의에 의한 연구 참여로 이루어졌다. 또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되어진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for 20.0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스트레스, 진로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스트레스, 진로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감성지능, 스트레스, 진로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전체의 88.0%, 나이는 평균 27.7±6.47 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전체의 46.5%이었으며 종교는 없음이 51.4%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는 하지 않는 군이 54.2%이었으며, 지원동기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한 군이 33.1%이었으며, 전문직이므로 지원한 군이 28.9%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군이 70.4% 이었으며, 편입 전 전공은 인문 사회계열이 35.9%, 보건계열이 26.8% 순이었다. 졸업 후 희망진로는 임상간호사가 83.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대학생활 적응 정도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감성지능, 스트레스, 진로태도성숙,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2>과 같다.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평균 2.93±.72(4점 만점)이었다. 감성지능은 평균 3.77±.43(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자기감성이해 4.00±.52, 타인감성이해 3.86±.61, 감성조절 3.57±.66, 감성활용 3.66±.64로 나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17(12.0)
	Female	125(88.0)
Age	≤25	27.7±6.47
	26-30	65(45.8)
	>30	48(33.8)
Grade	2nd	29(20.4)
	3rd	30(21.1)
	4th	66(46.5)
Religion	None	46(32.4)
	Protestant	73(51.4)
	Buddhist	17(12.0)
	Others	6(4.2)
A part-time job experience	No	77(54.2)
	Only on vacation	37(26.1)
	Yes	28(19.7)
Motivation for selecting major of Nursing	By parent's recommendation	21(14.8)
	For employment	33(23.2)
	By interest	47(33.1)
	For professional job	4(28.9)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100(70.4)
	moderate	38(26.8)
	unsatisfaction	4(2.8)
The major before transfer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38(26.8)
	Department of natural science or Engineering	29(20.4)
	Department of social sciences or humanities	51(35.9)
	others	24(16.9)
Dream job	Clinical nurse	119(83.8)
	Others	23(16.2)

났다.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평균 3.57±.46(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결정성 .47±.83, 목적성 2.92±.61, 확신성 , 3.83±.67, 독립성 3.93±.70, 준비성 3.83±.6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3.34±.64(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개인-정서적 적응 3.24±.74, 학업적 적응 3.08±.72, 대학환경적 적응 4.01±.79, 사회적 적응 3.17±.87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tatistic

(N=142)

Variables	M±SD	Min	Max	Range
Stress	2.93±.72	1.03	4.44	0-4
Emotional intelligence	3.77±.43	2.50	5.00	1-5
Self-emotion appraisal(SEA)	4.00±.52	2.50	5.00	
Other's emotion appraisal(OEA)	3.86±.61	1.00	5.00	
Regulation of emotion(ROE)	3.57±.66	1.75	5.00	
Use of emotion(UOE)	3.66±.64	1.25	5.00	
Career attitude maturity	3.57±.46	2.25	4.79	1-5
Determinacy	3.47±.83	1.00	5.00	
Finality	2.92±.61	1.60	5.00	
Conviction	3.83±.67	1.00	5.00	
Independence	3.93±.70	1.75	5.00	
Preparedness	3.83±.63	2.00	5.00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3.34±.64	1.57	4.71	1-5
Personal- emotional adjustment	3.24±.74	2.50	5.00	
Academic adjustment	3.08±.72	1.50	4.90	
College environmental adjustment	4.01±.79	1.00	5.00	
Social adjustment	3.17±.87	1.50	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대학생활 적응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들 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 활 적응은 성별($t=2.201, p=.029$), 지원동기($F=7.188, p<.001$)와 전공만족도($F=6.147, p=.003$)에서 통계적

Table 3. Adjustment to colle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Categories	n(%)	adjustment to College									
		Total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College environ-mental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Mean±SD	t or F(p) Sceffe	Mean±SD	t or F(p) Sceffe	Mean±SD	t or F(p) Sceffe	Mean±SD	t or F(p) Sceffe	Mean±SD	t or F(p) Sceffe
Gender											
Male	17(12)	3.66±.52	2.201	3.64±.67	2.395	3.34±.44	2.398	3.44±.70	1.369	4.21±.69	1.099
Female	125(88)	3.30±.64	(.029)	3.18±.74	(.018)	3.04±.74	(.023)	3.14±.88	(.173)	3.98±.80	(.274)
Age											
≤25	65(45.8)	3.27±.57	.717	3.14±.62	1.211	3.02±.73	.387	4.00±.78	2.114	3.11±.86	.334
25-30	48(33.8)	3.41±.67	(.490)	3.29±.84	(.301)	3.12±.78	(.680)	4.16±.69	(.125)	3.23±.87	(.717)
>30	29(20.4)	3.34±.64		3.38±.83		3.13±.58		3.78±.93		3.22±.89	
Grade											
2nd ^a	30(21.1)	3.43±.58	1.528	3.30±.78	.137	3.24±.61	4.956	4.11±.66	1.700	3.23±.78	2.520
3rd ^b	66(46.5)	3.24±.72	(.221)	3.21±.79	(.872)	2.88±.78	(.008)	3.88±.88	(.186)	3.01±.99	(.084)
4th ^c	46(32.4)	3.42±.54		3.24±.65		3.25±.61	b<c	4.13±.72		3.37±.66	
Religion											
None	73(51.4)	3.32±.67		3.25±.77		3.02±.71		3.95±.80		3.12±.87	
Protestant	46(32.4)	3.36±.59	.724	3.23±.73	.427	3.13±.65	.998	4.11±.70	1.001	3.13±.94	.926
Buddhist	17(12.0)	3.48±.64	(.539)	3.30±.75	(.734)	3.28±.77	(.396)	4.13±.94	(.395)	3.50±.56	(.430)
Others	6(4.2)	3.05±.63		2.92±.38		2.80±1.10		3.63±.89		3.17±.88	
A part-time job experience											
No	77(54.2)	3.43±.63	1.97	3.32±.75	.980	3.21±.67	3.137	4.09±.76	2.800	3.25±.79	.786
Only on vacation	37(26.1)	3.19±.71	(.142)	3.12±.81	(.378)	2.89±.68	(.047)	3.75±.89	(.064)	3.11±.95	(.458)
Yes	28(19.7)	3.29±.52		3.16±.61		2.96±.81		4.13±.66		3.04±.95	
Motivation for selecting major of Nursing											
By parent's recommendation ^a	21(14.8)	2.98±.65	7.188	2.80±.71	5.068	2.76±.83	8.461	3.75±1.01	6.305	2.86±.94	1.401
For employment ^b	33(23.2)	3.21±.56	(<.001)	3.17±.61	(.002)	2.82±.66	(<.001)	3.86±.64	(<.001)	3.11±.74	(.245)
By interest ^c	47(33.1)	3.64±.49	c>a,b,d	3.51±.61	c>a	3.46±.60	c>a,b,d	4.39±.65	(<.001)	3.28±.90	
For professional job ^d	4(28.9)	3.28±.72		3.20±.88		3.01±.64		3.82±.78		3.27±.87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a	100(70.4)	3.46±.59	6.147	3.33±.73	2.530	3.22±.64	7.973	4.17±.73	8.023	3.27±.85	2.231
moderate ^b	38(26.8)	3.07±.66	(.003)	3.04±.74	(.083)	2.73±.78	(.001)	3.63±.81	(.001)	2.92±.91	(.111)
unsatisfaction ^c	4(2.8)	3.00±.75	a>b	2.90±.95		2.65±.77	a>b	3.56±.80	a>b	3.25±.29	
The major before transfer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38(26.8)	3.28±.56		3.16±.62		2.94±.70		4.09±.71		3.14±.72	
Department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29(20.4)	3.45±.61	.427	3.36±.72	.377	3.29±.60	1.335	4.03±.72	.326	3.12±1.05	1.521
Department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51(35.9)	3.34±.68	(.734)	3.22±.77	(.770)	3.07±.84	(.266)	4.00±.85	(.806)	3.35±.83	(.212)
others	24(16.9)	3.28±.72		3.25±.91		3.04±.55		3.89±.89		2.92±.87	
Dream job											
Clinical nurse	119(83.8)	3.37±.62	1.123	3.24±.72	.293	3.11±.71	1.390	4.07±.76	2.030	3.20±.84	.913
Others	23(16.2)	3.20±.73	(.264)	3.20±.85	(.770)	2.89±.74	(.167)	3.71±.86	(.044)	3.02±.98	(.363)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과를 지원한 대상자가 부모님의 권유나 취업의 용이성, 전문직이어서 학과를 지원한 대상자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성별($t=2.395, p=.018$), 지원동기($F=5.068, p=.002$)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과를 지원한 대상자가 부모님의 권유로 지원한 대상자 보다 개인-정서적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적응은 성별($t=2.398, p=.023$), 아르바이트 유무($F=3.137, p=.047$), 지원동기($F=8.461, p<.001$), 전공만족도($F=7.97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과를 지원한 대상자가 부모님의 권유나 취업의 용이성, 전문직이어서 학과를 지원한 대상자에 비해 학업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학업적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학환경 적응은 지원동기($F=6.305, p<.001$), 전공만족도($F=8.023, p=.001$), 희망진로($t=2.030, p=.04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대학환경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상자들의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생활 적응은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감성지능($r=.418, p<.001$), 진로태도성숙($r=.220, p=.009$)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r=-.425, p<.001$)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감성지능, 스트레스, 진로태도성숙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771~.99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0.1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51로 2에 매우 근접하며,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모델 1은 성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를 회귀시킨 결과로 대학생활 적응의 변량을 19.1%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간호학을 지원한 경우($\beta=.282, p<.0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beta=.239, r=.002$)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beta=.152, p<.05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스트레스를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로 모델 1에 비해 종속변수의 변량을 16.0% 더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간호학을 지원한 경우($\beta=.275, p<.001$), 전

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djustment to college

Variables	Stress r(p)	Emotional Intelligence r(p)	Career Attitude Maturity r(p)	Adjustment to College r(p)
Stress	1			
Emotional Intelligence	-.096(.256)	1		
Career Attitude Maturity	.016(.852)	.390(<.001)	1	
Adjustment to College	-.425(<.001)	.418(<.001)	.220(.009)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SE	β	t(p)	SE	β	t(p)	SE	β	t(p)	SE	β	t(p)	tolerance
(Constant)	.094		31,395 (<.001)	.201	-	19,929 (<.001)	.434	-	5,719 (<.001)	.475	-	5,053 (<.001)	
Gender	.151	.152	1,969 (.051)	.136	.124	1,792 (.075)	.130	.125	1,898 (.060)	.130	.124	1,876 (.063)	.982
Motivation for selecting major of nursing	.106	.282	3,605 (<.001)	.095	.275	3,924 (<.001)	.095	.187	2,645 (.009)	.096	.188	2,653 (.009)	.861
Satisfaction of major	.108	.239	3,081 (.002)	.097	.228	3,271 (.001)	.094	.191	2,841 (.005)	.098	.182	2,581 (.011)	.871
Stress				.061	-.402	-5,820 (<.001)	.058	-.379	-5,740 (<.001)	.059	-.381	-5,739 (<.001)	.982
Emotional Intelligence							.105	.276	3,899 (<.001)	.112	.265	3,490 (.001)	.750
Career Attitude Maturity										.103	.032	.431 (.667)	.771
Statistics	$R^2=.191$, Adj $R^2=.173$, $F(p) = 10.828(<.001)$			$R^2=.351$, Adj $R^2=.332$, $F(p) = 18.522(<.001)$, $\Delta R^2=.160$, $\Delta F=33,868(<.001)$			$R^2=.416$, Adj $R^2=.395$, $F(p) = 19,394(<.001)$, $\Delta R^2=.065$, $\Delta F=15,203(<.001)$			$R^2=.417$, Adj $R^2=.391$, $F(p) = 16,096(<.001)$, $\Delta R^2=.001$, $\Delta F=.185(.667)$ Durbin-Watson = 2,051			

공만족도가 높을수록($\beta=.228$ $p=.001$), 스트레스가 낮을수록($\beta=-.402$, $p<.001$)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감성지능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결과이며, 종속변수에 대한 변량 설명력은 41.6%이었다. 이는 모델 2에 비해 6.5% 더 설명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지원한 경우($\beta=.187$, $p=.009$),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beta=.191$, $p=.005$), 스트레스가 낮을수록($\beta=-.379$, $p<.001$), 감성지능이 높을수록($\beta=.276$, $p<.001$)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beta=.125$, $p=.06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는 대학생활 적응의 변량을 4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 3에 비해 설명력의 변화가 없었다. 성별($\beta=.124$, $p=.063$), 진로태도성숙($\beta=.032$, $p=.667$)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동기($\beta=.188$, $p=.009$), 전공만족도($\beta=.182$, $p=.011$), 스트레스($\beta=-.381$, $p<.001$), 감성지능($\beta=.265$, $p=.001$)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스트레스($\beta=-.38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beta=.265$), 지원동기($\beta=.188$)와 전공만족도($\beta=.182$)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편입생들의 감성지능, 스트레스 및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93(4점 만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된 Jung & Kwon(2016)의 연구 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평균 1.22로 나타난 것과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된 Cha(2016)의 연구에서 평균 2.16(4점 환산) 나온 결과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편입생들은 일반 신입생들과 다르게 타 대학

의 대학생활을 이미 경험함으로써 생물학적 나이차이로 인한 관계형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공과 제도, 낮은 문화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편입생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 교육과정 등으로 인해(Shin, *et. al.*, 2003; Kim, *et. al.*, 2017)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편입생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편입생 전담 창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평균 3.77점(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자기감성 이해 4.00점, 타인감성 이해 3.86점, 감성조절 3.57점, 감성활용 3.66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는 다르지만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한 Kim & Oh(2016)의 연구결과 평균은 3.52점(5점 환산)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도 3.72점, 3.71점, 1.94점, 2.04점으로 나타난 Kim & Oh(2016)의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또 Yang(2015)의 연구결과에서는 4학년이 2, 3학년보다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 증가에 따른 임상실습 등의 다양한 경험들이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성을 조절·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Kim & Oh(2016)의 연구에서 21~21세가 80%이상인 기존 간호대학생 보다 편입생의 경우 연령 군(평균 27.7세)이 높고 타 대학의 학문 및 대학생활을 경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평균 3.57(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결정성 3.47, 목적성 2.92, 확신성 3.83, 독립성 3.93, 준비성 3.83 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 & Park(2005)의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평균 3.45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결정성 3.47, 목적성 3.11, 확신성 3.28, 독립성 3.44, 준비성 3.89로 나온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전

체 진로태도성숙과 하위영역 중 확신성, 독립성 정도는 일반 간호대학생에 비해 편입생이 비교적 높았으며, 결정성과 준비성 정도는 비슷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진로태도성숙 하위영역 중 목적성은 편입생이 일반 간호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진로태도성숙 중 목적성은 목적지향성에 대한 것으로,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사회, 경제적 욕구보다는 자아실현과 사회봉사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Lee, 1998). 따라서 목적성이 낮은 사람은 직업적 의미를 외적인 가치, 즉 현실적인 욕구와 경제적 보상 등에 초점을 둔다. 편입생의 경우 간호학 전공에 대한 진로의 의미를 취업의 기회 보장, 임금보장과 같은 경제적 보상 등의 다분히 현실적이고 외적인 가치를 추구(Shin, *et. al.*, 2003)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편입생들이 자아실현과 사회적 봉사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직에 대한 가치체계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직에 대한 구체적이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3.34점(5점 만점)이었으며, 각 하위영역 별 점수는 개인-정서적 적응 3.24점 학업적 적응 3.08점, 대학환경적 적응 4.01점, 사회적 적응 3.17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5)의 연구결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평균 3.64점, 하위영역 별로 개인-정서적 적응 3.23, 학업적 적응 3.02점 대학환경적 적응 3.73점, 사회적 적응 3.92점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볼 때, 대학환경적 적응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개인-정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 정도는 유사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적응에서 특히 낮은 연구결과가 나타나 사회적 적응이 대학생활 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이란 대학에서 동료들과의 학문적·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대학생활에 잘 적응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Baker & Stryk, 1984).

편입생들은 타 대학의 다른 전공을 경험하고 새로운 학교 환경에 노출되어 인간관계 면에서 기존의 재학생들과는 다른 문화적 이질감, 소외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Shin, *et. al.*, 2003; Kim & Hwang, 2012; Kim, *et. al.*, 2017) 기존 재학생들과 융화가 요구되는 동아리나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 스스로 동아리나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모색하는 학생일수록 참여 기회가 적은 학생에 비해 사회적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덜 겪는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Laanan, 2007). 따라서 편입생들이 기존 재학생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아리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편입생들의 자조모임의 활성화 할 수 있는 상설 창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성별 ($t=2.201$, $p=.029$), 지원동기($F=7.188$, $p<.001$)와 전공만족도($F=6.147$,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과를 지원한 대상자가 부모님의 권유나 취업의 용이성, 전문직이어서 학과를 지원한 대상자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Oh(2017)와 Choi(2016)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이 지원동기,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과를 지원한 경우 취업의 용이성 또는 부모님의 권유로 학과를 지원한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간호학과 재학생과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 & Chung(2015)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은 입학과 편입 시부터 진로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타 과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이로 인해 전공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 비해 학업적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과 수업이 병행되는 간호학과 교과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학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할애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편입생들은 또래보다 학교를 몇 년 더 다니게 됨으로써 부모님에게 경제적 의존을 보다 많이 하게 된다(Kim, *et. al.*, 2017). 그러므로 편입생들의 학업적 적응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학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 정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Lee & Chae, 2016; Oh, 2017)와 유사하였으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Cha, 2016),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 정도가 높다(Kim, 2014)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편입생들이 간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족, 새 학교 체제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위기를 경험(Shin, *et. al.*, 2003; Kim & Hwang, 2012)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좋은 자질과 더 높은 감성지능을 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위해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으므로 기존 재학생과는 다른 전략을 구상하기도 하고 더 세련되게 학생문화를 이용하기도 한다(Shin, *et. al.*, 2003; Kim, *et. al.*, 2005). 따라서 편입생들의 높은 감수지능을 이용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직에 대한 가치체계를 함양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변량을 41.7% 설명하고 있으며,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및 감성지능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태도성숙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Choi, 2017), 스트레스(Cha, 2016; Cho & Chung, 2015), 감성지능(Oh, 2017) 등의 변인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반면, 진로태도성숙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Kim(201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심사숙고 끝에 새로운 전공을 선택한 편입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더 좋은 자질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편입생들이 느끼고 있는 구체적 스트레스원은 대인관계의 어려움(Kim, et. al., 2017; Kim & Hwang, 2012), 편입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부담스러운 교과과정 및 제도의 부재(Shin, et. al., 2003) 등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상의 결과로, 편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편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로 하는 편입생의 선후배 자조모임, 오리엔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편입생 전용 창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감성지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년별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편입생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와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자조모임, 상설 창구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새로운 체제로의 진입으로 인해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은 기존 재학생과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 바,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aker, R. W. and B. Si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1(2): 179-189.
- Cha, Nam Hyun.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7(2): 124-131.
- Cho, Hae Kyung and Su Kyoung Chung. 2015. Relationship among College Life Stress, Alienation and College Adjustment: Focused on Transferred and Non-transferr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79-2793.
- Choi, Hyun Ju. 2017. Moderation and Mediation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68-77.
- Hwang, Phil Joo. 200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Jeong, Hee Young. 2010.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Ph. D.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 Ji, Kyung Ja and Jin Yeong Yoo. 2013. A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0): 653-660.
- Jung, Ha Yun and Jeong Ok Kwon. 2013.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and Mental-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4): 191-204.
- Kim, Young Soon and Eun Ju Oh. 2016.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03-111.
- Kim, Gun Hee and Eun Hee Hwang. 2012. Transfer-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he First Semester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Crisis Overcome. *Crisisonomy*. 8(5): 123-142.
- Kim, Ic Jee, Min Kyung Jeon, and Young Suk Kim. 2017. Type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for Transfer Nursing Students: Using Q Methodology. *Crisisonomy*. 13(2): 115-126.
- Kim, Ji Youn.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 Kim, Yeong Hee. 2015. The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948-8956.
- Kim, Yeong Kyeong, Myung Ok Cho, and Jin Hyang Yang. 2005. The Experiences of Identity Developing among the Enroll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6(1): 15-31.
- Ko, Chung Mee. 2017.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5(2): 120-127.
- Koo, Hyun Young and Hyun Sook Park. 2005.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2): 373-385.
- Laanan, S. F. 2007. Studying Transfer Students: Part II: Dimensions of Transfer Students' Adjustment.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1(1): 37-59.
- Lee, Ki Hak.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Lee, Kwang Ok and Hyun Ju Chae.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355-365.
- Oh, Yun Jung.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 Park, Hee Seok. 2010. Investigating the Structure of the Revised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Focused on Tourism Major's Student.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4(2): 45-66.
- Park, Hyoung Sook, Jung Mi Yun, Young Mi Kim, In Young Choi, and Jae Hyun Hwang. 2016. Critical Thinking, Self-Concept and Stress Adaptation of Transfe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3): 320-330.
- Shin, Kyung Rim, Eun Jeong Cha, and Young Hye Kim. 2003.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722-730.
- Wong, Chi Sum and Kenneth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274.
- Yang, Sun Yi. 2015.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6): 370-378.
- Yoo Ji Soo, Soo Jung Chang, Eun Kyoung Choi, and Jee Won Park. 2008.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10-419.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7.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http://kess.kedi.re.kr/index>.
- 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8. <http://www.mohw.go.kr/>
- OECD Stat. 2017. Health Care Resources: Nurses. <http://stats.oecd.org/>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구현영, 박현숙. 2005. 간호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도와 관련 변인. *상담학연구*. 6(2): 373-385.

- 고정미. 2017.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감성지능의 역할. 스트레스연구. 25(2): 120-127.
- 김건희, 황은희. 2012.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체험: 대학생활의 적응 및 위기 극복. Crisisonomy. 8(5): 123-142.
- 김영경, 조명옥, 양진향. 2005. 편입생의 정체성 변화 경험. 질적연구. 6(1): 15-31.
- 김영순, 오은주. 2016.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7): 103-111.
- 김영희. 2015.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간호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논문지. 16(2): 8948-8956.
- 김익지, 전민경, 김영숙. 2017.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유형: Q방법론적 접근. Crisisonomy. 13(2): 115-126.
- 김지연. 201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숙, 윤정미, 김영미, 최인영, 황재현. 2016. 간호학과 편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간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23(3): 320-330.
- 박희석. 2010.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관광관련 전공 학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4(2): 45-66.
- 신경림, 차은정, 김영혜. 2003. 간호학과 편입생의 체험. 대한간호학회지. 33(6): 722-730.
- 양선이. 2015.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컨텐츠학회지. 15(6): 370-378.
- 오윤정. 200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5(7): 307-317.
- 유지수, 장수정, 최은경, 박지원. 2008.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8(3): 410-419.
- 이광옥, 채현주. 2016.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디지털정책연구. 14(10): 355-365.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하윤, 권정옥. 201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4): 191-204.
- 정희영. 2010.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경, 정수경. 2015. 대학생활 스트레스, 소외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간호학과 편입생과 일반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17(5): 2779-2793.
- 지경자, 유진영. 2013.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및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 653-660.
- 차남현. 2016.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2): 124-131.
- 최현주. 2017.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68-77.
- 황필주. 2007.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상호의존성의 조절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7.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 보건복지부. 2018. <http://www.mohw.go.kr/>.

Received: May 20, 2018 / Revised: Jun. 29, 2018 / Accepted: Jul. 19, 2018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었으며, 대상자는 B시와 K도에 소재 7개 대학의 간호학과 편입생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및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 감성지능, 직업태도성숙 및 대학생활 적응은 각 평균 2.93 ± 0.72 , 3.77 ± 0.43 , 3.57 ± 0.46 및 3.34 ± 0.64 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은 스트레스 ($r = -.425$, $p < .001$), 감성지능 ($r = .418$, $p < .001$) 및 진로태도성숙($r = .220$, $p = .009$)과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감성지능 및 전공 만족도와 지원동기 이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를 높여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대학생활 적응, 스트레스,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편입생

Profiles **Min Kyung Jeon** : She received her Ph.D. from Kosin University.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Kaya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of research is nursing education and nursing management(angj99@kaya.ac.kr).

Ick Jee Kim : She received her Ph.D. from Kosin University.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Youngsan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of research is Q Methodology, Nursing, and Nursing Education(ikjim@ysu.ac.kr).

Young Suk Kim : She received her Ph. D. from Kosin University.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College of Nursing at Kosin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4. Her interesting subject of research is global nursing, nursing education(joy1763@hanmail.net).

Mi Young Han : She received her B.A., M.A., and Ph.D. from Kosin University, Korea in 2015.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Silla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5.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rsis & emergency management, global health(hmynr@silla.ac.kr).